제1장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제2장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제3장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식기반화

1. 현황과 문제점

1) 농림축산업

(1) 현 황

■ 농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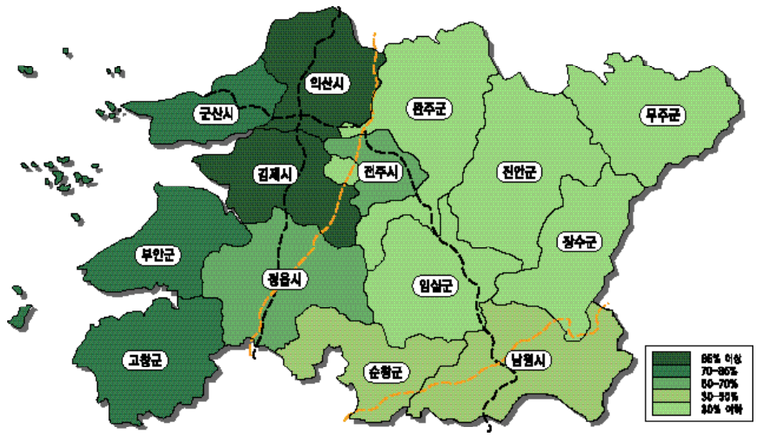
· 1998년 현재 본 지역의 경지면적은 222천ha로 도 전체면적의 27.5%, 전국 총경지면적의 11.6%를 점하고 있다. 전체 경지 가운데 74.7%가 논으로 전남, 충남과 더불어 국내 최대의 평야지역이자 식량생산기지로 자리잡고 있다.

<표 Ⅶ- 1>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 변화

구 분		단위	1980	1990	1995	1998	연평균증가율 (1980 98)
전 국	총 인 구	천인	38,723	42,869	45,093	47,174	1.10
	농 가 구	천호	2,155	1,767	1,501	1,413	△2.34
	농가인구	천인	10,827	6,661	4,851	4,400	△5.00
	(60세이상)	%	10.5	17.8	-	30.5	-
	경지면적	천ha	2,196	2,109	1,985	1,910	△0.78
	답	%	59.50	63.77	60.70	54.86	-
	전	%	40.48	36.22	39.3	35.70	-
	임야면적	천ha	6,568	6,476	-	6,436	△0.11
전 북	총 인 구	천인	2,318	2,047	1,902	1,923	△1.04
	농 가 구	천호	243	188	152	142	△2.98
	농가인구	천인	1213	708	485	435	△5.70
	(60세이상)	%	10.0	18.3	26.72	31.62	-
	총경지면적	천ha	249	240	229	222	△0.64
	답	%	70.68	73.33	73.96	74.77	-
	전	%	29.31	30.41	26.04	25.22	-
	임야면적	ha	438	430	-	452	0.17

· 본 지역의 농가구는 142천호, 농가인구는 435천명으로, 1980 1998년기간 동안 농가구는 연평균 △2.98%, 농업인구는 △5.70%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두드러진 감소경향을 보여왔다. 경지면적은 1998년 현재 222천ha로 1980년 249천ha에 비해 약 27천ha가 감소하였다. 동 기간중 경지는 연평균

△0.64%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호당 경지면적은 1980년 1.14ha에서 1990년 1.24ha, 1998년 1.56ha로 증가하여 1998년 현재 전국평균 1.35ha를 초과하고 있으며, 전국의 시 · 도중 가장 넓은 호당 경지면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같은 호당 경지면적의 증가는 경지면적의 전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역인구가 더욱 빠르게 감소된 데 기인한다.



<도 Ⅶ- 1> 시 · 군별 경지면적율 현황

· 본 지역의 농업생산은 식량작물, 특히 미곡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다. 1998년 현재 지역의 식량작물 생산면적은 180,727ha, 생산량은 845.8천M/T이다. 미곡의 생산면적 및 생산량 구성이 각각 85.2% 및 93.1%로 대부분을 점한다. 전국대비 식량작물의 재배면적 및 생산량 비중은 13.6%와 14.7%이다. 이 가운데 주곡인 미곡과 맥류 생산은 면적기준으로 각각 전국의 14.5%와 16.9%, 생산량 기준으로 15.5%와 13.0%에 달하여, 타 식량작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잡곡과 두류 및 서류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데, 특히 잡곡의 생산량은 전국의 2.3%로 전북의 인구비중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표 Ⅶ- 2> 식량작물 재배면적 및 생산량

(단위: ha, 천M/T, %)

구 분		계	미 곡	맥 류	잡 곡	두 류	서 류
면 적	전 북	180,727 (100.0)	153,937 (85.2)	14,091 (7.8)	1,651 (0.9)	7,049 (3.9)	3,999 (2.2)
	전 국	1,331,932 (100.0)	1,058,927 (79.5)	83,406 (6.3)	30,099 (2.2)	120,115 (9.0)	39,385 (3.0)
	전국비중	13.6	14.5	16.9	5.5	5.9	10.2
생산량	전 북	845.8 (100.0)	787.8 (93.1)	24.6 (2.9)	2.1 (0.3)	9.5 (1.1)	21.7 (2.6)
	전 국	5,759.4 (100.0)	5,096.9 (88.5)	189.2 (3.2)	91.3 (1.6)	164.5 (2.9)	217.5 (3.8)
	전국비중	14.7	15.5	13.0	2.3	5.8	10.0

주 : 정곡기준
자료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9

· 과일(과채)류, 특용작물 및 채소류의 생산은 1980년대 후반이후 급속히 증가하여 새로운 영농작물로 대두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시설재배 면적의 확산으로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과실 · 과채류 생산에 있어서, 본 지역의 단위면적당 과실생산량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표 Ⅶ- 3> 전국대비 주요 과일 및 과채류 생산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연도	사과	배	감	수박	참외	딸기
면 적	1988	1.7	3.7	3.3	10.1	4.3	7.9
	1998	2.9	5.0	4.3	16.7	5.2	7.1
생 산 량	1988	1.7	4.1	3.6	10.5	3.7	6.0
	1998	2.9	5.5	5.4	18.3	3.2	7.5
단위 면적당 생산량	1988	104.6	109.2	109.2	103.7	85.8	75.7
	1998	100.1	109.6	125.4	109.4	61.7	105.8

주 : 사과와 배는 1998년 기준, 감은 1987년 기준, 그외는 1996년말 기준

· 그러나 높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재배면적의 협소로 인하여 본 지역의 과수 생산은 전국에서 큰 명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 작물생산이 전국적인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배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표 Ⅶ- 4> 작물별 재배면적

구 분		전 국		전 북		전국대비 점유비중
		면적(천ha)	%	면적(ha)	%	
계		2,117.,8	100.00	250,904	100.00	11.84
식량작물	소계	1,331.9	62.9	180,727	72.0	13.56
	미곡	1,058.9	50.0	153,937	61.4	14.53
	맥류	83.4	3.9	14,091	5.6	16.89
	잡곡	30.1	1.4	1,651	0.7	5.48
	두류	120.1	5.7	7,049	2.8	5.86
	서류	39.4	1.9	3,999	1.6	10.15
채 소		360.2	17.0	34,341	13.7	9.53
특용작물		97.8	4.6	10,993	4.4	11.24
과 수		175.7	8.3	6,117	2.4	3.48
뽕 밭		1.1	-	178	-	17.16
기타 수원지		25,2	1.2	3,464	1.4	13.76
기 타 작 물		126.1	6.0	15,084	6.0	11.96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9

■ 축산업

· 본 지역의 가축사육두수는 한육우 210,715두, 젖소 40,825두, 돼지 691,390두 등이다. 가축의 전국대비 점유율을 보면 한육우가 8.8%, 젖소가 7.6%, 돼지가 9.2%, 닭이 1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가 1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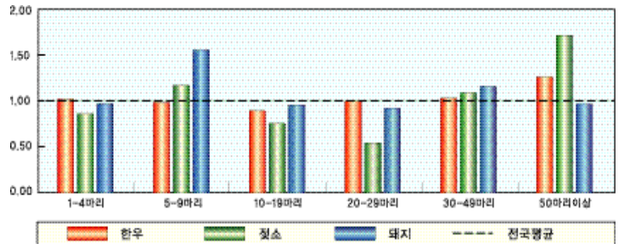
<표 Ⅶ- 5> 축산가구 및 가축수 현황

(단위: 가구, 두수)

구 분	전 국		전 북		전국대비 비중		가구당 마리	
	가구수	가축수	가구수	가축수	가구수	가축수	전국	전북
한·육우	427,005	2,383,133	37,495	210,715	8.78	8.84	5.5	5.6
젖 소	15,671	538,913	973	40,825	6.21	7.58	34.3	41.9
돼 지	27,002	7,543,777	3,843	691,390	14.23	9.17	279.3	179.9
닭	168,060	8,5847,387	14,036	8998,785	8.35	10.48	510.8	641.1
기 타	951,897	6,922,940	102,779	734,344	10.8	10.61	7.2	7.1

자료: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1999

· 축산가구당가축사육두수는한육우가 5.6마리, 젖소가 41.9마리등으로전국축산가구평균에 비해 다소 많으나 돼지와 닭 및 기타의 경우는 전국 평균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다. 한·육우와 젖소, 돼지 등 주요 가축의 사육규모당 가구수 비중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국과유사하나대단위축산가구의비중은전국평균보다다소높게나타나고있다.



<도 Ⅶ- 2> 전국대비 사육 규모별 축산가구 비중

■ 농업가공·유통시설

· 본 지역에는 전주와 익산 2개소의 농산물 공영도매시장과 4개소의 공판장 및 1개소의 농산물 물류센터(전주)가 개설되어 있다.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이 18개소, 공판장이 33개소(1998년말 개장 25개소), 물류센터가 14개소(건설중 포함)에 지나지 않는 전국과 비교해 볼 때 농산물의 출하시설은 비교적 잘 구비되어 있다. 농산물 산지가공 및 유통시설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가공유통시설 가운데 산지유통센터는 7개소가 건설되어 전국의 6.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간이집하장이 298개소로 전국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표 Ⅶ- 6> 농산물 산지가공·유통시설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전 국	전 북	전국대비비중
산지유통센터		112	7	6.3
간이집하장		3,290	298	9.1
가공산업 육성사업	계	1,395	182	13.0
	전통식품개발	1,086	142	13.1
	산지일반가공사업	309	40	12.9
	특산단지	748	196	26.2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 산지가공사업인 전통식품개발사업과 산지일반가공사업의 경우 각각 전국의 13.1%와 12.9%가 지역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특산단지는 전국의 26.2%인 196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본 지역내 특산단지의 종류별 특성을 보면, 민속공예품단지가 129개소로 전체의 65.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일반공산품단지가 23개소, 농수산자재단지, 석재, 섬유직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Ⅶ- 7> 농촌특산단지 조성실적

(단위: 개소)

구 분	계	민속공예품	농수산자재	일반공산품	섬유직물	석재
전 국	748 (100.0)	436 (58.3)	96 (12.8)	68 (9.1)	92 (12.3)	56 (7.5)
전 북	196 (100.0)	129 (65.8)	18 (9.2)	23 (11.8)	12 (6.1)	14 (7.1)
전국대비 비중(%)	26.2	29.6	18.8	33.8	13.0	25.0

자료: 농림부, 농림업 주요통계,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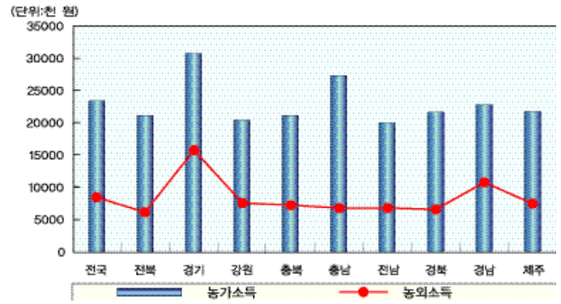
(2) 농림축산업의 문제점

■ 1차산물 생산중심의 저부가가치형 영농체계

· 본 지역의 농 · 림 · 축산업은 대부분 생산에 중심을 둔 저부가가치형 영농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산지에서의 가공 및 유통시설이 부족하다. 도내 산지유통시설과 간이집하장 등은 전국 도지역 가운데 최하위권이며, 시설규모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낮은 농가소득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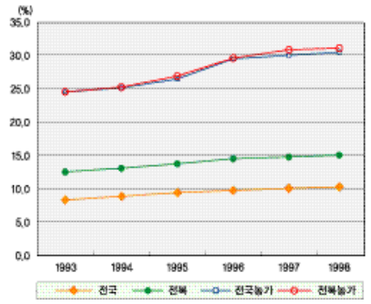
· 본 지역은 전형적인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1997년도 연간농가소득은 21,254천원으로 전국 평균농가수입 23,488천원의 90.5%에 지나지 않는다. 소득원별 농가소득을 보면, 농업소득은 10,102천원으로 전국평균 10,603천원의 95.3%, 농외소득은 6,215천원으로 전국평균 8,278천원의 75.1%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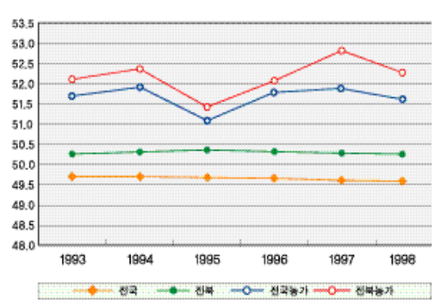
<도 Ⅶ- 3> 도별 농가소득 및 농외소득 비교

■ 전문영농인력 양성의 부진

· 본 지역은 지역영농후계자 육성사업 등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실정이다. 1981 98년까지 전라북도의 농업인 후계자 육성 인원은 총 13,273인으로 경북, 전남, 경남, 충남에 이어 5위에 그치고 있다. 농업이 고부가가치의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경영에 있어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습득 · 실천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농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도 Ⅶ- 4> 농가의 노령인구 비중추이



<도 Ⅶ- 5> 농가의 여성인구 비중

■ 농업인력의 노령화 · 부녀화

· 본 지역내 60세이상의 농가인구 비중은 1980년 10.0%에서 1998년 현재 31.6%로 전국 농가에 비해 다소 빠르게 노령화가 진전되고 있다. 또한 농가의 부녀인구는 52.3%로 전국농가 부녀자수 51.6%를 다소 상회하고 있다. 노령화와 부녀화의 진전은 지역의 과학영농 및 기업농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2) 수산업

(1) 현 황

■ 수산업생산 및 어가

· 본 지역의 어업인구는 18,876인으로 전국의 5.9%이며, 어가는 전국의 5.8%인 5,703호이다. 연도별로 보면 1980년 당시에 비해 어가는 15백여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어업인구는 14천 6백여명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1980년대 이후 어가호수가 2.5%, 어업인구가 5%이상 감소한데 비해 본 지역의 어업인구는 1.3%가 감소하여 전국 어업인구 및 어가에서 본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어업생산량(원양어업 제외)은 72,827톤이며, 이 가운데 일반해면어업이 49,135톤으로 ⅔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대비 어업생산량 비중은 3.44%로 어가 인구수 비중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천해양식업은 전국의 2.71%로 어업부문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Ⅶ- 8> 어업인구 추이 및 현황

(단위: 호, 인, %)

구 분		어가호수			어업인구		
		전국	전북	%	전국	전북	%
1980		156,934	4,179	2.7	844,184	23,507	2.8
1990		121,412	5,619	4.6	495,995	23,476	4.7
1995		104,480	6,073	5.8	347,210	20,776	6.0
1996		101,677	5,671	5.6	330,464	19,074	5.8
1997		99,912	5,703	5.7	323,383	18,680	5.8
1998		98,972	5,703	5.8	322,229	18,876	5.9
연평균 증가율	1980-90	△2.53	3.00	-	△5.17	△0.01	-
	1990-98	△2.52	0.18	-	△5.24	△2.68	-

<표 Ⅶ- 9> 어업 생산량

(단위: M/T)

구 분	전국		전북		전국대비 전북비중
	M/T	%	M/T	%	
계	2,112,418	100.0	72,827	100.0	3.44
일반해면	1,308,336	61.9	49,135	67.4	3.75
천해양식	777,230	36.8	21,103	29.0	2.71
내수면	26,852	1.3	2,589	3.6	9.64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1998

■ 어항 현황

· 본 지역에는 18개소의 지정항과 14개 소규모어항이 있으며, 고군산도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소규모 어항이 분포하고 있다. 지정항을 유형별로 보면 1종항 2개소, 3종항 4개소이며, 2종항이 12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지정어항 가운데 1998년 현재까지 시설이 완공된 어항은 12개소로 1종항 1개소, 3종항 2개소이며, 2종항은 7개소가 완공되어 있다.

<표 Ⅶ-10> 어항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전국		전북		비 고
		지정	완공	지정	완공	
지정어항	소 계	410	121	18	10	
	1종 어항	69 (16.8)	41 (33.9)	2 (11.1)	1 (10.0)	(격포), 구시포
	2종 어항	305 (74.4)	63 (52.1)	12 (66.7)	7 (70.0)	(하제) (계화) (하리) (심포) (비안도) (곰소) (돈지), 상왕등도, 동호, 선유도, 개야도, 비응도
	3종 어항	36 (8.8)	17 (14.0)	4 (22.2)	2 (20.0)	(연도), (위도), 어청도, 말도
육지소어항		971	-	14	-	

주 : 비고란의 ( )안은 98년말까지 완공어항
자료: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어항편람 1999

(2) 문제점

■ 어업의 영세성 및 저부가가치형 생산구조

· 본 지역내 어업인구 비중은 전국의 5.85%를 차지하나 어업생산량은 3.4%에 불과하여 지역내 어촌가구의 낮은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다. 어업생산구조를 살펴보면 일반해면어업이 6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천해양식업과 내수면어업 등 고부가가치형 어업생산은 전국에 비해 낮다. 또한 어항을 중심으로 한 산지가공 · 유통시설이 미흡하여 수산물 판매중심의 생산구조를 지니고 있는 반면, 수산가공품의 생산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수산물어획고 대비 수산물가공품 생산고의 비중을 살펴보면 본 지역은 24.0%로 전국의 73.0%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표 Ⅶ-11> 수산물 어획고 및 수산가공품 생산고 현황

연도	수산물어획고(M/T)			수산가공품생산고(M/T)		
	전국	전북	%	전국	전북	%
1994	2,589,389	120,793	4.7	1,714,511	22,379	1.3
1995	2,450,957	83,540	3.4	1,691,850	24,205	1.4
1996	2,528,910	65,185	2.6	1,727,497	12,498	0.7
1997	2,414,330	65,552	2.7	1,653,342	13,436	0.8
1998	2,111,818	72,827	3.4	1,541,249	17,464	1.1

자료: 통계청, 어업생산통계 1998

■ 어업시설의 취약과 어업기반의 쇠퇴

· 본 지역은 군장지구,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간척사업 추진에 따른 어업기반감소와 어장환경 파괴 및 어족자원 고갈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에따라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상실된 어장과 어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대체어장 및 어항 개발이 요구되나 큰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어항시설이란 점에서 볼 때 1종어항이 전국 69개소 가운데 2개소에 지나지 않아 본 지역내 어업인구나 생산량 비중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정어항의 개발 추진실적이 미진한 실정이다.

■ 어업인구 기반의 지속적인 감소

· 본 지역내 어업인구는 1998년 현재 18,876인으로 전국대비 5.85%를 차지하나 1990 98년 기간동안 연평균 △2.68%가 감소하여 어업인구기반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업어가의 비율이 31.6%이고 겸업어가가 총 어가의 68.4%를 차지함으로써 전문화된 어업이 곤란한 실정이다.

2. 농축수산업의 여건변화와 전망

■ 영농기술의 발달과 농산물시장 개방

· 농업분야의 여건변화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영농기술 발달, 농산품시장 개방, 소비자 기호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본 지역의 농업생산은 시장개방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WTO에 제출한 시장개방 일정에 따라 품목별로 수입개방이 확대될 것이며, 국제경쟁력이 부족한 일부 국내 농산품의 시장은 급격히 축소될 것이다.

■ 국가경제성장에 따른 소비자와 국민기호의 변화

· 국가경제의 성장에 따른 국민들의 기호변화가 지역의 농업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득증대에 따라 주곡의 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일부 과일은 소득증가에 따라 소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계절별 특정 과일소비방식에서 벗어나 소비의 연중분산화 경향이 나타날 것이며, 주소비 시기의 이동현상 역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소비자 기호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시설재배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사과 등 일부 과일의 경우 전국적인 명성을 보유한 고품질 명산품만이 경쟁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 기호의 또 다른 변화는 청정농산물에 대한 선호의 증가이다. 현재 청정농산물의 단위당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선호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지속될 것이다.

■ 농업생산 · 유통구조의 변화

· 과학기술 발달과 정보화로 생산 · 경영 · 유통구조에 획기적인 변화가 전망된다. 소비자 기호에 부합되는 품종개발이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또 유통 측면에서는 유통의 대형화가 촉진되고, 다양한 유통주체와 유통경로가 출현할 것이다. 농업에 있어서 소비자의 역할이 증대되어 소비자 기호에 부

응하는 품질좋고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 공급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농업인은 경영혁신을 통한 경쟁력 배양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농업의 다기능화

· 녹색관광의 활성화에 따라 농업의 다기능화가 강조될 것이다. 환경농업은 농업으로서 뿐만아니라 관광자원으로서도 활용가능해 질 것이다. 특히 본 지역은 우리나라의 도 가운데 산지와 중산간지 및 넓은 평야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대표적 지역으로써 다양한 작물 생산 및 축산업 육성이 가능하므로 농촌지역 체험관광(그린투어리즘) 등 녹색관광과 환경농업을 접목할 수 있는 대표적 지역으로 육성할 수 있다.

3.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기본방향

- ● 농축수산품의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추진
- ● 농축수산업의 마케팅 강화와 수출산업화
- ● 농축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및 현대화

■ 농축수산품의 기술개발과 고부가가치화 추진

· 고부가가치형 농축수산물의 개발을 위하여 기술연구 · 품종개량 등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특산작물의 생산 · 가공을 통한 농수산품의 브랜드화 및 수출산업화를 도모하여 농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그리고 차별화된 상품개발을 위하여 유기농 등 친환경적 농축수산품 생산을 확대토록 한다. 본 지역을 선도적인 생태영농시범지대로 조성하고, 품질보증을 위하여 농축수산품 품질인증제도의 확립을 도모한다. 이와함께 지식기반화와 첨단화, 그리고 전문사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농축수산업의 마케팅 강화와 수출산업화

· 농축수산업의 마케팅 강화와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첫째, 농축수산물의 생산 · 출하정보시스템 구축토록 하고, 이를 통하여 첨단영농기반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정농축수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간 직거래망의 체계적인 확대 및 관리, 농축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망 형성과 농축수산품의 포장디자인 개발 및 브랜드화 추진 등 전문적인 마케팅 기능을 강화한다. 둘째, 농축수산물의 해외홍보와 수출을 위한 시장정보, 수출대행서비스 등을 제공토록 한다.

■ 농축수산업 생산기반의 확충 및 현대화

· 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품목의 중점육성 및 지역특산물 생산벨트를 조성토록 한다. 그리고 첨단농업기술 개발 · 보급 및 고품질의 특화품종 육성사업 지원을 통하여 첨단기술 과학농업의 육성 및 농업기술기반을 확대한다.

4.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시책

1) 고부가가치형 농축수산품 개발

■ 농축산물 기술개발 지원

· 첨단기술 과학농업의 육성 및 농업기술기반 확대를 위하여 주요산지별 또는 지역특작물 연계벨트별로 관련 연구소나 기술지원센터의 설치(유치)를 모색하여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를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품종의 개발을 지원한다. 첨단농업기술 개발 · 보급 및 고품질의 특화품종 육성사업 등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도내대학 관련학과와 연계망을 확충하여 농민들이 영농기술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단계적으로 농업관련학과와의 상설 연계망을 구축한다. 신품종 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육종단지의 건설, 축산업 육성을 위한 종축장 개발 등을 추진한다.

■ 지역산품의 특작화 추진

· 농축수산물의 품질개선과 신품종 육성, 고부가가치 특작품종의 개발 등을 통해 지역이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의 개발을 추진한다. 대학 및 공공시험 · 연구소와 농축산 · 어가간 연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신기술 도입을 지원한다. 전문화를 통한 기술기반 및 생산확대를 위하여 농작물의 지역별 특작화

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소비자 기호변화 및 지역 영농조건 등을 고려하여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집중 육성토록 한다.

■ 수산물의 전략적 개발추진

· 수산업 기술기반 강화를 위하여 도내에 위치한 기존 국립 · 도립 종묘배양장과 어업 현장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수산업 관련 연구소의 유치 · 신설 및 지역내 대학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수산업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양식업의 경쟁력 확보 및 위생적인 수산물 수요 증대에 부응하는 환경 수산물 공급확대를 위하여 고부가가치형 수산물을 전략품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전략품종은 서해안지역에서 유망한 어종으로 평가된 참돔과 대하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되, 특히 대일본시장의 수출 증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한다. 세계적인 수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품종에 대해서는 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를 도입하여 생산어장 부터 가공 · 유통단계까지 고도의 위생관리가 가능토록 한다.

■ 환경 · 과학영농의 육성 확대

· 환경 · 과학농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영농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한다. 농가단위의 소규모 환경농업에서 탈피하여 마을단위의 환경농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청정농산물 지역으로서의 전라북도 이미지를 제고하고, 농산품에 대한 홍보효과를 도모한다. 무농약 농업, 저농약 농업농가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기농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유기농 등 친환경적 농산품에 대한 인증제도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산품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농산품의 시장확보를 지원한다. 개별 유기농가의 품질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개 농가에 대한 환경농법 기술지도의 활성화, 환경농업 성공사례의 보급 등을 추진한다. 친환경 농산물 판매시설 및 유통망 구축을 지원한다. 마을단위 환경농업단지에 대해 산지 유통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라북도 유기농산물 홍보망을 구축하며, 농가 홈페이지 구축을 우선 지원한다. 축산물의 고급화를 통한 수입개방에의 대처를 위하여 유기 축산을 도내 전역으로 확산한다. 지역별 축산단지에 유기 축산의 도입을 장려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사료 재배 확대, 국공유지를 활용한 초지조성 등 청정사료 공급기반의 확대를 추진한다.

■ 영농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화 추진

· 전문 농업인 양성 및 영농 교육훈련사업을 강화한다. 농업인 후계자 육성, 농업경영컨설팅, 교육훈련, 특성화대학, 축산농가경영 여건개선, 임업전문기술 양성 등 교육 및 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농업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농산물의 과잉생산이나 동시 출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영농정보의 적시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정보시스템 및 농산물 출하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지역내 농수산업 중심지별로 생산자 및 생산단체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확대한다. 수도권 등 대규모 시장내 유통시설의 확보를 검토하며 농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2) 농축수산품의 마케팅 및 유통 · 판매지원

■ 농축수산품 브랜드화

·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및 지역내 특산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농산품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공 · 유통시설 확충과 더불어 지역단위로 농산품의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농산품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농축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을 지원하며, 인삼 등 전국적 생산비중에 비해 지역의 지명도가 낮은 작물에 대해서는 도 차원의 홍보계획을 수립한다. 농수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하여 대단위 수출단지의 조성, 청정사료 공급기반 구축, 고급품 생산을 위한 기술센터 등의 사업을 검토하며, 농축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해외 홍보를 통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제고한다. 농업단체나 개별 농가에 의한 해외시장의 직접개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 · 군 또는 시 · 도 단위의 해외시장 개척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인의 해외시장 접근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 및 수출물류센터의 설치를 검토한다.

■ 농축수산물 유통 및 판매지원

· 농축산물 유통체계의 개선 및 수출기반의 확충을 추진한다. 생산지에서의 가공 · 유통시설 확보는 농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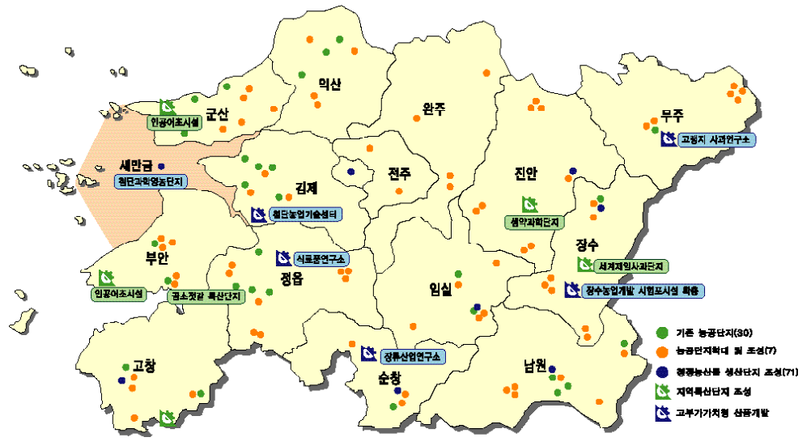
따라서 농수산물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며, 광역적으로는 대단위 유통단지 건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현지 가공시설의 신규 및 기존 시설의 정비를 통해 산지가공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농수산업이 명실상부한 1.5차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정농산물 및 사과, 배 등 본 지역이 경쟁력을 갖는 품목 확대와 수출시장을 개척 지원한다.

· 축산물의 수출확대를 위하여 육질의 고급화와 원료 육의 안정적 공급을 추진하여 위해관리제도를 도입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농축산물의 생산을 도모한다. 이와함께 수산물의 처리 · 저장 · 가공 · 유통시설을 확충토록 한다. 수산업의 경우, 산지 처리 · 가공시설 및 유통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수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공동판매시설 및 유통체계의 개선을 위한 산지유통센터, 협동조합 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산지 및 소비지 유통기반을 확충한다. 이를 위하여 농수산물 가공산업지원, 축산물 및 임산물 유통 · 가공지원, 농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의 건설, 특산품 전시장 및 판매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내 농업인의 소득기반을 개선한다. 지역내의 농수산업 중심지별로 생산자 및 생산단체의 가공산업 참여 확대를 추진하며, 계약재배, 소비자 참여생산 및 농산물 사이버쇼핑체제 구축 등을 통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를 확대한다. 수도권 등 대규모 시장내 유통시설의 확보를 검토하며 농수산물의 신속한 유통을 위한 시설을 확충한다

3) 농축수산업의 생산기반 확대

■ 지역특산단지 조성

· 농산물 특작단지의 조성과 시설현대화를 추진한다. 지역이 경쟁우위에 있는 전략품종의 집중 육성을 위한 농산물 특작단지를 조성한다. 특작물에 대한 홍보강화, 영농규모 경제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작단지의 건설은 개별농가 단위가 아닌 마을 단위로 추진한다. 특작단지의 건설은 과일류를 중심으로 추진하며, 동부산악지역의 경우 버섯 등 소규모 임산물 특작단지의 건설 방안도 검토한다. 마을단위 특작단지 조성시 가공 · 유통시설을 병행하여 배치함으로써 통합적 생산 · 가공 ·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특작물 생산단지의 확충과 더불어 광역적 측면에서 지역특작물 연계벨트를 조성토록 한다. 특작물 생산단지의 확충과 지역간 생산연계 벨트의 구축은 동부산악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우선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도 전역으로 확산토록 한다. 연계벨트 내에는 영농지원을 위한 공공시설과 기술지원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배치하며, 광역적 차원에서의 홍보 · 마케팅 전략을 추진한다.



<도 Ⅶ- 6> 지역특산단지 조성계획

· 전문축산단지의 조성 및 축종의 지역별 전문화를 추진한다. 고급육의 생산을 확대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는 품질의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하여 지역별 축종의 특화를 추진한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제화되고 있는 위해관리제도에 의한 시장진입규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내 축산단지의 시설 현대화와 축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등 전 단계에 걸친 종합적 관리방안을 도입한다.

■ 농축수산업 생산기반의 확대

· 첫째, 농업기반조성사업의 조속한 확충을 추진한다. 일반경지정리사업, 대구획경지정리사업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을 기 계획된 일정내에 달성함으로써 지

제1장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출산업화

역영농기반을 안정화하며, 영농의 특작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적이 미미한 밭기반 정비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배수개선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도모하며, 노후화된 수리시설 및 방조제 시설은 신속히 개·보수한다. 경지중심으로 이루어진 기존 농업기반시책에서 탈피하여 가공·유통시설까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을 확대·적용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의 실질적인 확충과 현대화를 추진한다.

· 둘째, 축산기반의 확충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축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전작사료재배 및 초지조성을 통한 사료작물 생산기반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축산단지조성과 폐수정화시설 확충, 가공저장시설의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 셋째, 임업기반정비와 임산자원 활용여건을 개선한다. 임산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개발을 위하여 임업기반을 정비·확충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조림사업 및 육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임목축적량을 증대하고, 고급경제목 중심의 수종갱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야계사방 및 산지사방사업과 함께 임도개설 및 확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산지의 다목적 활용과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지 조성, 산지특작물 재배와 유통시설개선사업에 치중하도록 한다.

· 넷째, 대체어장 조성사업 및 인공어초시설의 확충을 추진한다. 대체어장 개발 대상사업 적지 15천ha 가운데 미추진 부분의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며 대단위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손실된 기존어장의 대체를 위하여 신규 대체어장 개발가능지를 적극 확보한다. 인공어초시설을 통한 어패류의 서석·생육지 조성으로 바다목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본 지역내의 인공어초 투하 적지중 미추진분을 조속히 착수하되 획일화된 인공어초 투하방식을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화하여 양질의 어장 형성을 도모한다. 바다목장 건설사업과 해수·담수 양식어장의 확충을 추진한다. 21세기 기르는 어업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적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다목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해면양식의 활성화와 더불어 새만금 담수호를 이용한 대단위 내수면 어장의 개발을 검토하며, 지역내에 존재하는 폐염전을 활용한 양식어장 개발을 추진한다. 대하, 넙치, 우럭 등 고급어종의 치어 매입 및 방류를 통해 어족자원을 육성하며, 고급패류의 도입·양식을 통해 현재 바지락 중심으로 구성된 패류양식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

자료: 해양수산부, 해양발전기본계획

<도 Ⅶ- 7> 해역별 바다목장 개발계획

· 다섯째, 지정어항의 시설 확충과 현대화 및 다기능 거점어항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내 어업거점의 확대를 위하여 현재 미완공 상태에 있는 기존 지정항의 조속한 완공을 추진한다. 특히 국가관리 어항으로 승격이 예정된 상왕등도항 1998년 지정된 구시포항의 조속한 개발 및 3종어항인 어청도항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전라북도 수산업 육성기반을 정비하며, 광역지자체 관리어항인 2종어항중 개발이 미완료된 어항의 시설건설 및 기 완공된 어항의 시설 현대화를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2종항 가운데 어업여건이 양호한 어항은 1종항으로의 승격을 추진한다. 도내에 산재한 육지소규모항을 정비, 취약한 어항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소규모항의 지역내 어업전진기지화를 추진하며, 선착장 등 소득기반시설의 확충을 통해 어민소득증대를 도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육지 소규모 어항을 승격하여 지정어항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그리고 어항시설과 기능확충을 통하여 지역내의 어항을 종합 기능을 보유한 다기능어항으로 육성토록 한다. 기존 어항의 다기능화를 위하여 어선, 레저보트, 유도선 등 다양한 선박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어항시설을 다기능적으로 배치하며, 환

경친화적이며, 문화 · 복지시설 등 다양한 시설의 입지를 추진한다. 다기능어항의 개발은 개발 여건 및 발전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격포항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입지여건이 양호한 2종 및 3종어항으로 확대토록 한다.

<표 Ⅶ-12> 농축수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시책

추진시책	사업유형	세부 시책 및 개발사업	사업비 (억원)
농축수산품 고부가가치화	고부가가치형 산품개발	· 식품가공개발 · 연구시설(장류산업연구소, 식품료연구소 등) · 신품종개발 · 연구(고랭지사과연구소 등) · 농업기술개발시설지원(첨단농업기술센타, 장수농업개발시험포시설) · 무공해첨단농법 및 유전공학기술개발지원, 친환경가족농단지, 환경농업지원 등	1,622 (14)
	농축수산품 가공	· 농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축산물종합처리장 등	790 (227)
농축수산품의 마케팅 추진	농축수산품 유통지원	· 농축수산물의 유통센터 건설 및 현대화 · 농축수산물 저장, 보관 및 직판장 설치 · 생산자-소비자 직거래망 구축확대 및 농축수 산물 생산출하정보시스템 구축	3,157
	농축수산품 브랜드화	· 지역특산품 브랜드화 및 품질인증제, 축산진흥전시관, 지역산품 수출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350 (8)
농축수산업 생산기반 확대	지역특산단지 조성	· 첨단과학영농단지, 지역특산물단지(세계제일사과단지, 생약과학단지), 인공어초시설, 곰소젓갈 특산단지 등	6,257 (261)
	생산기반 확대	· 일반경지정리, 중규모농업용수개발, 기계화경작로 확 · 포장사업, 경지기반정비사업(밭기반정비, 대구획경지재정리), 2종어항시설, 어장개발 등	37,507 (17,897)
	농공단지 조성	· 남원농공단지, 완주이서 및 비봉농공단지, 진안 제2농공단지, 장계 농공단지, 오수 제2농공단지, 순창 식품전용, 고창 흥덕농공단지 등 7개소	740
계		-	50,423 (18,407)

1. 현황과 문제점

1) 제조업 위상과 업종구성

■ 제조업 생산기반의 취약

· 1998년 현재 본 지역의 제조업체수는 총1,929개소로 전국의 2.4%이며, 월평균 종사자수는 67,182인으로 전국의 2.9%이다.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각각 전국의 3.0%와 2.8%로 나타나 종사자수 비중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와같이 본 지역은 제조업 사업체나 고용, 생산액 비중이 전국의 3%이하로 생산기반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의 생산기반 취약은 지역내 집적이익의 유발을 제약하고 제조업을 시장으로 하는 생산자서비스업의 지역내 입지를 제약함으로써 지역내 종합적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표 Ⅶ-13> 제조업 현황

(단위: 개소, 인,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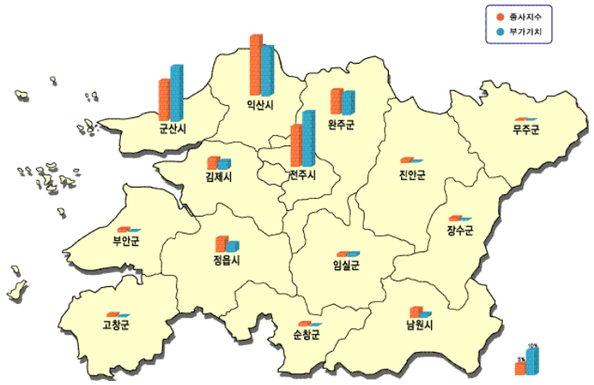
구 분	사업체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업체당 지표(전국=100)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전 국	80,298	2,328,642	428,024	178,399	100.00	100.00	100.00
전 북	1,929	67,182	12,165.17	4,925.89	120.09	98.51	97.14
전주시	333	12,532	2,421.48	1,311.34	129.77	105.12	129.93
군산시	273	13,436	3,593.58	1,264.63	169.71	145.50	84.43
익산시	520	18,881	2,684.36	1,153.59	125.20	77.34	103.10
정읍시	152	4,540	556.47	187.85	102.99	66.68	80.98
남원시	158	2,556	228.10	84.86	55.78	48.55	89.25
김제시	141	3,599	721.00	189.00	88.01	108.98	62.89
완주군	139	7,782	1,420.75	559.33	193.05	99.32	94.45
진안군	19	483	35.99	19.46	87.65	40.53	129.71
무주군	9	133	11.55	4.95	50.95	47.22	102.92
장수군	16	306	21.88	10.47	65.94	38.89	114.80
임실군	41	844	157.17	54.25	70.98	101.31	82.80
순창군	29	664	108.85	31.64	78.95	89.18	69.73
고창군	49	726	100.93	25.83	51.09	75.63	61.40
부안군	50	700	103.09	28.71	48.27	80.11	66.82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 1998(잠정치): 전라북도, 전라북도 통계연감, 1999

제2장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지역혁신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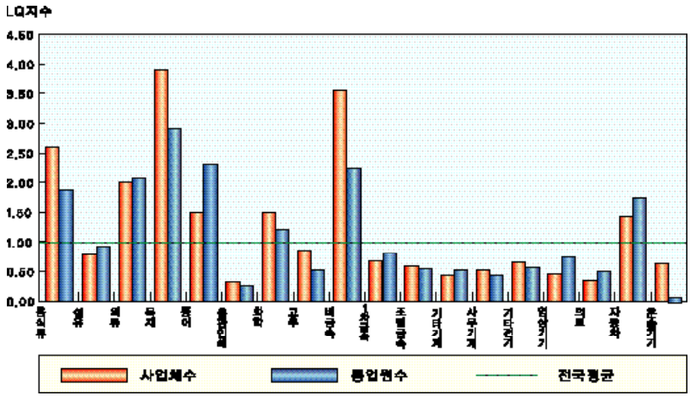
■ 저부가가치형의 업종구조

· 본 지역내 제조업 업종구조를 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경공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중공업의 발달이 극히 미미하여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도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본 지역은 업체수 기준으로 경공업이 전체의 52.3%를 점하고 있으며, 종업원수 기준으로도 44.8%를 차지하여 ½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익산과 전주, 군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는 식품제조업과 비금속광물 제조업 등이 주종을 이루는 전형적인 지방형 업종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비해 지식기반산업의 발달은 극히 미약하다. 본 지역내 업체당 종업원 규모는 전국평균 29인에 비해 다소 큰 34.8인을 기록하고 있는데, 업체당 부가가치와 생산액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본 지역의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 성격이 강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본 지역내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업체수 기준으로는 음식료품(17.4%)과 의류(15.1%), 비금속광물(13.3%)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14.9%)이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자동차제조업(12.9%)과 의류제조업(11.8%)의 순이다. 이를 테면 첨단전자와 반도체, 신소재, 생명공학 등 대부분의 업종이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1990년대 후반이후 전국 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정보통신산업이나 벤처기업의 전국대비 점유율에서도 미미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도 Ⅶ- 8> 시군별 제조업 종사자수 및 부가가치 비중

· 본 지역내 제조업의 전국대비 특화도를 살펴보면, 나무 및 목재가공업이 가장 높은 특화도를 보이며, 음식료품과 의류산업, 제지, 비금속 광물제조업, 자동차 산업 등이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반기계 및 전기 · 전자, 정밀기계 산업부문은 자동차를 제외한 전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지역이 경공업 중심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제조업 점유율 뿐만 아니라 제조업의 업종구조가 상대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음을 말한다.



<도 Ⅶ- 9> 전북 제조업의 입지계수

<표 Ⅶ-14> 제조업의 업종별 구성

구 분	사업체		종업원	
	개소	비중(%)	인	비중(%)
제조업계	1,929	100.0	67,182	100.0
음식료품	336	17.4	10,002	14.9
섬유제품	136	7.1	5,567	8.3
의복모피	291	15.1	7,910	11.8
목 재	140	7.3	1,916	2.9
종 이	76	3.9	3,715	5.5
출판인쇄	29	1.5	573	0.9
화 학	98	5.1	5,466	8.1
고 무	89	4.6	1,606	2.4
비금속광물	257	13.3	5,876	8.7
1차금속	25	1.3	2,179	3.2
조립금속	91	4.7	2,150	3.2
기타기계	87	4.5	2,634	3.9
사무기계	6	0.3	388	0.6
기타전기	41	2.1	1,457	2.2
영상 및 음향기기	24	1.2	4,252	6.3
의료, 정밀기기	10	0.5	510	0.8
자동차	82	4.3	8,636	12.9
기타 운송기기	11	0.6	114	0.2
가구 및 기타	90	4.7	1,645	2.4
재생자료	4	0.2	81	0.1
기타	6	0.3	505	0.7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2) 첨단기술분야 및 벤처기업 현황

■ 첨단기술분야 지식기반산업의 취약성

· 제조업 가운데 첨단기술분야로 각광받고 있는 사무기기와 기타 전기 · 전자기기, 영상 · 음향기기, 의료 · 광학 · 정밀기기 부문은 전체 업체수의 4.2%에 불과하여 여전히 취약한 위치에 있다. 첨단기술 분야중에서는 영상 · 음향기기 분야가 전체 제조업고용의 6.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등 사무기기 제조업은 단지 6개업체가 388명을 고용하고 있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지역내 지식기반제조업은 전체 제조업체의 4.0%, 종업원수의 5.9%,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지식기반제조업 가운데 첨단전자산업 26개소, 정밀화학 19개소, 생물산업 12개소, 반도체 9개소, 신소재 8개소의 순을 차지하고 있다.

<표 Ⅶ-15> 지식기반산업의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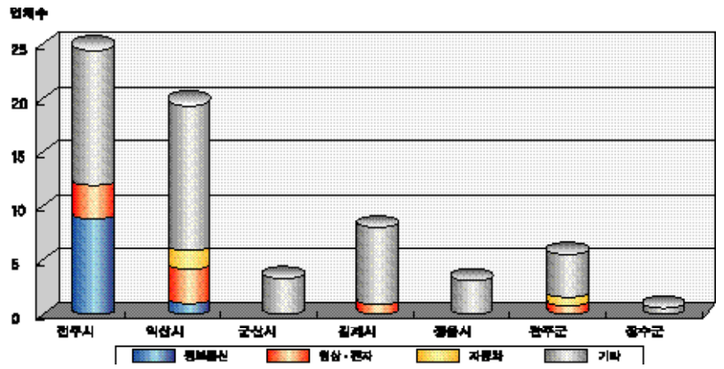
(단위: 개소, 인, 백만원, %)

구 분	사업체		종업원		부가가치	
	업체수	비중	종업원수	비중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2,213	-	78,460	-	50,230	-
지식산업계	89 (4.02)	100.0	4,656 (5.93)	100.0	3,036 (6.04)	100.0
첨단전자	26	29.2	1,355	29.1	994	32.7
반도체	9	10.1	2,532	54.4	1,337	44.0
메카트로닉스	15	16.9	128	2.8	45	1.5
정밀화학	19	21.3	315	6.8	279	9.2
생물산업	12	13.5	156	3.4	314	10.3
신소재	8	9.0	170	3.7	65	2.1

주: 괄호안은 전국대비 비중

■ 벤처기업의 성장부진

· 1999년말 현재 본 지역에는 전국의 1.9%인 66개소의 벤처기업이 입지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정보통신산업이 10개소, 영상 및 전자기기 8개소, 자동차 산업 3개소에 지나지 않으며, 기타 45개소는 대부분 전통제조업 분야의 기업으로 전통산업의 성격이 강한 편이다. 벤처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5개 시지역과 완주, 장수군에만 분포할 뿐 기타 지역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는다. 특히 도내 벤처기업의 68.2%가 전주시와 익산시 두 지역에 입지하여 제조업에 비해 지역집중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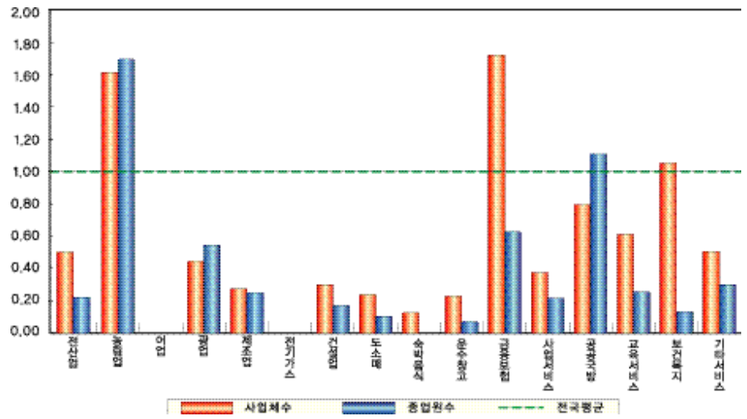


<도 Ⅶ-10> 지역내 벤처기업 업종별 · 지역별 분포현황

· 전주지역의 경우, 1990년대말 이후 소프트웨어산업의 창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주 소프트웨어지원센터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1999년 현재 전라북도의 소프트웨어 업체는 72개소에 달하여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1] 전주지역에서의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은 그동안 부진하였으나 정부지원과 시책에 따라서는 신산업분야의 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업무 및 중추관리기능 취약

· 본 지역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대부분 개별사업체나 다공장(사업체) 기업의 분공장(지사)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내 기업본사 · 본점은 총 272개소로 전국의 2.05%에 불과하며, 종업원수는 0.82%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내 업무 및 중추관리기능의 미비는 지역경제와 관련된 주요한 의사결정이 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 협력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의 지역내 입지를 제약하기도 한다.



<도 Ⅶ-11> 업종별 전국대비 사업체본사 비중(전국평균=1)

1)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7년 현재 전북에는 13개소의 소프트웨어업체가 입지하고 있다.

4) 지역기술혁신 기반의 취약

·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는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혁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혁신과 관련된 본 지역의 여건은 대학생수를 제외하고는 타 지역에 비해 취약하다. 본 지역내 대학교원은 인구 1만명당 12.6명, 대학생은 696.2인으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 1만명당 연구원수는 29.4인이며, 연구비는 8.8억원, 연구개발 조직은 0.42개로 전국 평균에 비해 크게 낮다. 특히 연구비의 지출은 전국 평균의 ⅓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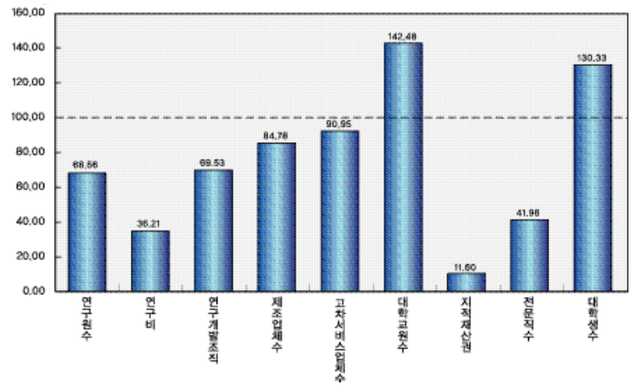
<표 Ⅶ-16> 인구1만인당 지역혁신 주요 지표

구 분	전국	전북	전국=100
연구원(인)	42.90	29.41	68.56
연구비(억원)	24.41	8.84	36.21
연구개발조직(개소)	0.61	0.42	69.52
제조업체(개소)	60.07	50.92	84.77
고차서비스업체(개소)	21.01	19.11	90.94
대학 교원(인)	8.83	12.59	142.47
대학생(인)	534.17	696.17	130.32
산업재산권 출원(건)	44.72	5.18	11.60
관리 · 전문직종사자(인)	805.46	337.99	41.96

주: 지적재산권 출원은 1997년말 기준, 그외는 1998년 기준
자료: 특허청, 특허정보; 과기부, 과학기술통계, 1998: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998: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8;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1998

· 연구개발활동의 주요 주체이자 수요자인 제조업체와 고차생산자서비스업체수는 각각 50.9개소, 19.1개소로 전국 평균 60.1개소, 21.0개소에 미치지 못하고, 직종상 관리직과 전문직에 종사하는 인원은 338.0인으로 전국평균의 ½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역혁신기반의 취약으로 기술혁신의 성과도 매우 낮다.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등) 출원건수의 경우 전국 평균이 44.7건임에 비해 전라북도는 5.2건에 불과하여 전국의 11.6%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1985년 이후 전라북도의 산업재산권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0여년간 0.58/만인에서 2.58/만인으로 2건이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동 기간중 전국의 지적재산권 등록건수는 1만인당 4.69건에서 17.72건으

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전국평균에 대비한 전라북도의 혁신지표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큰 격차를 보임을 의미한다.



<도 Ⅶ-12> 전국 대비 1인당 지역혁신 지표비중

■ 대학 및 시험·연구기관

· 본 지역의 이공계열 대학교수는 총 1,183명으로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수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의학분야로 299명에 달한다. 전국대비 비중으로는 생물·농림·수산 분야가 7.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부설연구소의 설치는 대학교수의 분야별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라북도에는 총 48개소의 대학부설연구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의학분야 연구소가 1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생물·농림·수산분야 연구소가 9개소로 전국의 8.6%를 차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대학연구소 외에 본 지역에는 13개소의 공공부문 연구·시험기관과 45개소의 기업연구소가 입지하고 있다. 공공부문 연구시험기관은 지방정부 산하기관이 8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중앙정부 출연기관 2개소, 중앙정부 산하 국공립기관 2개소 등이 있다. 기업부설 연구소는 화학분야가 19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점하고 있으며, 기계·금속분야가 11개소, 전기·전자분야가 8개소 등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은 총 1,149인으로 전국의 1.41%를 점하고 있다.

<표 Ⅶ-17> 전라북도 대학의 연구개발 여건 현황

(단위: 명, 개소, %)

	대학 교수		부설 연구소	
	명	전국비중	개소	전국비중
정보·전자·통신	180	5.3	5	5.4
기계설비	77	5.5	1	3.0
토목건축	107	6.4	2	4.6
금속재료	31	5.3	1	4.6
화학·화공·섬유	100	5.8	-	-
환경	25	5.1	2	3.3
자원·에너지	11	3.1	1	4.2
생물·농림·수산	186	7.6	9	8.6
산업디자인	57	5.5	1	4.4
의학	299	4.1	13	6.5
종합 산업지원	-	-	7	4.2
기초과학	110	6.2	6	6.2
계	1,183	5.3	48	5.4

자료: 과학기술부, 지방과학기술연감, 1999

■ 산·학·연 연계활동 부진

· 산학연 연계는 지역혁신체제 구축의 핵심적 부분으로 상호교류에 의한 기술혁신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본 지역에는 지역내 산학연 연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3개의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원광대에는 기초의약학 분야를 담당하는 의약자원연구센터가, 전북대에는 전기·전자·컴퓨터 공학 분야의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가 지정되어 있으며, 군산대에서는 환경개선 및 새만금 수질개선 분야를 연구하는 새만금 환경연구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 지역기술혁신의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혁신센터로는 전북대의 자동차부품 및 금형 기술혁신센터가 지정되어 도내 자동차 산업과의 산학연 연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지정연구기관 외에도 군산대학교 산학협력센터, 전북대학교 영상산업사업단 등 지역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다양한 기관들이 최근 설립·운영되어 산학연 연계의 활성화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

<표 Ⅶ-18> 지역협력연구센터 및 기술혁신센터 현황

	대학	연구분야	센 터 명
지역협력 연구센터 (RRC)	원광대	기초 의 · 약학	의약자원연구센터(1995)
	전북대	전기 · 전자 · 컴퓨터공학	메카트로닉스연구센터(1998)
	군산대	환경공학	새만금환경연구센터(1999)
지역기술 혁신센터 (TIC)	전북대	자동차부품 및 금형	자동차 부품 · 금형 기술혁신센터 (자동차부품 연구원과 연계운영)

· 산학연 연계에 대한 대표적 정부지원 시책의 하나인 산학연연계 컨소시엄은 1999년 현재 6개 컨소시엄에 65개의 기업이 참여하여 64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참여기업수 측면에서 전국의 4.4%, 수행과제수의 4.5%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지역의 대학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1993년이래 전북의 산학연 연계 컨소시엄의 전국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컨소시엄수와 과제수는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반면, 참여기업수는 오히려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어 동 사업의 추진이 전국의 타 지역에 비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Ⅶ-19> 산학연 연계 컨소시엄 사업 추진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지역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컨소시엄수	전국	19	40	50	61	72	85	106
	전북	1	3	4	5	5	7	6
참여기업수	전국	328	767	969	1012	1161	1268	1474
	전북	37	56	48	67	71	99	65
수행과제수	전국	264	568	716	960	1117	1241	1420
	전북	9	31	33	57	63	83	64

자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관련통계, 2000.3

2. 여건변화와 수요전망

1) 산업여건 및 구조변화 전망

■ 지식기반산업 주도의 지역경제 성장

· 향후는 모든 산업부문에 있어서 지식정보화가 중요시되며 전자 · 생명공학 등 첨단산업과 지식정보산업이 21세기 경제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지식기반관련 산업의 고용 및 생산비중은 2010년 산업생산의 48.6%, 수출의 54.1%, 고용의 48.4%를 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 지역산업네트워크의 중요성 증가

· 기업간, 산 · 학 · 연간 상호교류에 의한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지역산업 네트워크 형성의 중요성이 증가할 것이다. 산업정책도 기존의 개별기업이나 부문중심의 정책에서 지역화된 산업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며, 네트워크경제의 확보를 위한 지역 산업군집(industrial cluster)[2]의 형성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 기술융합화의 진전으로 업종간 교류증대

· 향후 기술경쟁 심화로 단일 부문의 고립적 연구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정보통신과 생명공학의 결합에 따른 바이오인포매틱스(Bioinformatics)의 출현 등 기술간 융합화를 위한 업종간 · 기업간 교류가 더욱 증대될 것이다.

■ 지역사회 문화의 중요성 증가

· 경제주체간의 신뢰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과 상호간의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시장메카니즘을 통한 기술이전의 문제점을 보완한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되는 기술 가운데 암묵지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이들이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이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역혁신체제를 구성요소로서 상호간의 신뢰와 기술혁신에 대한 지역사회 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될 것이다.

2) 산업집적(industrial cluster)이란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지닌 연관산업의 공간적인 집중상태를 의미한다. M.Porter는 산업집적(industrial cluster)을 지리적 근접성 보다는 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 조건으로서 기업간 협력적 교류활동(collaborative interfirm relationships)을 의미하는 기업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산업입지 수요전망

· 본 지역의 산업입지는 1998년 현재 23.4㎢로 전국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개발과 환황해권의 국제교역 및 생산거점이 형성됨에 따라 2020년까지 70.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 전국의 산업입지 면적이 약 262.7㎢가 순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전북지역의 비중은 약 18%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본 지역내에 추가로 필요한 공장용지수요는 47.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Ⅶ-20> 전국과 전북의 산업입지 수요전망

(단위:㎢)

구 분	1998	2005	2010	2020	순증가분 (1998 2020)
전 국	473.3	623.0	685.0	736.0	262.7
전 북	23.4 (4.9)	35.6 (5.7)	51.4 (7.5)	70.7 (9.6)	47.3 (18.0)

주: ( ) 전국비중
자료: 국토연구원, 산업입지 수급방안 연구, 1999(내부자료)

3.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기본방향

-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부가가치화
- 첨단과학기술,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 등 신산업의 육성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선도기업의 지역내 유치 · 정착지원
- 지역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 기존 산업의 핵심역량 강화와 산업집적 형성

·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하여 지역내에 분포하는 기존 제조업 및 지연산업의 지식기반화와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는 섬유 · 의류산업 등과 같이 지역내에 존재하는 기존 제조업의 지식기반화와 목기 · 한지 등 지연산업의 지식기반화를 포함한다.

■ 첨단기술 · 정보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

· 소비자 수요의 지속적 변화나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심화 등과 같은 여건변화로 인하여 기존산업의 지식기반화에만 의존하여 지역경제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 지식기반산업의 지역내 육성을 도모한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은 기존 산업과 연관이 높은 분야에서부터 출발하며 지역산업 여건 및 가용자원 규모를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화된 업종을 선정하여 육성한다.

■ 외국인 직접투자 및 선도기업의 지역내 유치 · 정착지원

· 지역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산업의 내생적 성장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창업이나 창업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위한 물리적 ·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주요 산업분야의 선도기업을 지역내에 유치함으로써 지역내 입지여건의 개선 및 지역소재 창업기업의 존립기반 확대를 지원한다. 선도기업은 국내외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기업의 경쟁력 수준과 우리나라 산업발전수준을 고려하여 외국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기업이 지역내에서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경제적 · 사회적 여건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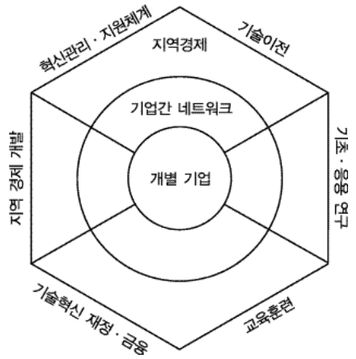
■ 지역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

· 고용기반 확대와 지역내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반 및 전문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지역내 고용창출력이 큰 여가 · 문화 ·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내 서비스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경영컨설팅 · 기술지원 · 정보 · 마케팅 · 회계 · 금융 등 전문적인 생산지원서비스산업의 육성을 통해 지역내 제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며, 기업본사의 유치와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상산업 육성, 소프트웨어진흥구역 설정 및 다양한 사무실 기능강화를 통해 업무도시 기반을 조성한다.

■ 지역혁신여건조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

· 지역의 혁신능력 제고는 기술경쟁시대의 중심명제가 될 것이다. 전라북도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의 다른 지역에 비해 경쟁력을 지니기 위해서는 특정기업 중심의 연구개발이 아니라 지역내에 체화된 기술혁신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대학과 산업현장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학기술의 상용화 및 기업이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둘째, 기업기술 지원 및 산학연 연계지원을 위한 거점시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셋째, 지역내의 혁신분위기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지역내 정보체계 구축 등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방안을 강구토록 한다.



자료: Hans-Joachim Braczyket al.(eds.), Regional Innovation Systems, p.65.

<도 Ⅶ-13> 지역혁신체제 개념도

4.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위한 세부추진시책

1) 기존 제조업 및 지연산업의 고부가가치화

· 저가제품 중심의 기존 생산구조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제품의 디자인에서 유통에 이르는 완결된 생산체계를 지역내에 구축하며, 기업의 기술 · 제품개발을 위한 공공지원센터의 건립을 추진한다.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산업구조 개편지원,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화 및 재편 등을 추진토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양산업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Corporate Restructuring Company) 및 벤처캐피탈을 적극 육성토록 하고, 아울러 산업단지내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커뮤니티형 포털서비스 제공 및 중소기업 e-Business 지원업체(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육성 등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확대한다. 한편,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개발, 특화산업 육성단지 조성, 전문가 육성 등을 지원토록 한다. 그리고 지연산업 분야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내 전문대학과 대학교 가운데 관련학과를 보유한 대학을 선정하여 특성화를 추진하며, 필요할 경우 보석전문훈련기관의 설립을 검토한다. 또한 기업의 시장확대를 위하여 제품의 홍보체계를 구축하고 전시판매센터의 설립을 지원하며,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공공 품질인증제도 도입,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시장확대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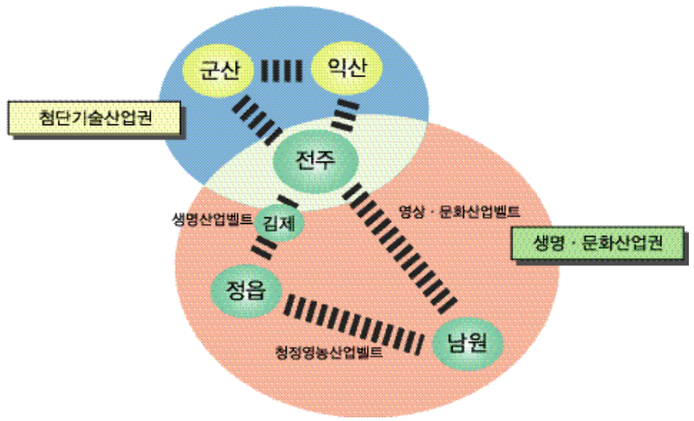
2) 첨단지식기반산업 육성

■ 지식기반산업벨트의 조성

· 본 지역의 산업이 수도권에 대해 독자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환황해권 지역의 교류거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역내 산업자원을 잠재력이 큰 거점지역으로 집중 ·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집적효과를 도내 전역으로 확산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첨단지식기반산업은 대부분 특정 생산요소 보다는 지역내 생산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등 전체적인 여건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정 지역이나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집중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투자를 요구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 지역내 산업집적과 이를 연계하는 첨단 지식기반산업벨트를 육성토록 한다.

· 지식기반산업의 발달은 지역의 산업여건에 일차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본 지역의 첨단산업벨트는 기존산업이 집적하여 있고, 인력공급 여건 등이 양호한 전주 익산 군산지역을 연결하는 삼각지대에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첨단지식기반산업중 기존 제조업과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생물산업과 문화

산업의 경우 전주시를 거점으로 하되, 생물산업 가운데 전라북도의 유망분야가 식품 및 농축산관련 분야임을 고려하여 전주시와 정읍시가 연계하여 육성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내 남동부의 중심지역인 남원시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문화산업은 전주시와 남원시를 연계하여 육성하며, 장기적으로 정읍시 지역으로의 확장을 추진한다. 또한 생물 및 영상 · 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해 하드웨어산업 중심의 전주 익산 군산 삼각벨트에 대응되는 전주 정읍 남원 삼각벨트의 육성을 도모한다.



<도 Ⅶ-14> 첨단지식기반산업벨트의 형성

3) 전략산업 육성과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지원

· 지식기반산업은 2020년 우리나라 산업생산액의 56.8%를 점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도 제조업 총 고용의 50%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본 지역에 맞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지역의 산업별 입지우위성(입지계수)과 지역성장기여도, 미래 성장전망 및 기타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토록 한다. 미래형 지식기반제조업으로는 첨단전자 및 반도체, 메카트로닉스, 생물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으로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산업, 영상 · 음반산업, 관광산업 등이 본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유망하게 평가되고 있다.

<표 Ⅶ-21> 지식기반제조업 부문의 전략산업 선정

구 분	정량적 요인			정성적 요인			선정결과
	입지 우위성	지역성장 기여도	성장전망	관련계획 연관성	입지 적합성	전문가 견해	
첨단전자		△	△		△	●	△
반도체	●	●	●		△	△	△
메카트로닉스	△		△	●	●	△	△
정밀화학		●		●		△	
생물산업	●	●	●		△	●	△
광산업							
항공기			△		△		
신소재	●		●	△	△		
환경산업				△	△	●	

주: ● 높음, △ 약간 높음
자료: 전라북도, 지역산업진흥계획

· 지역기술혁신센터 및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다양한 창업보육시설 건설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이와함께 전략산업 분야에 있어 산 · 학 · 연 연계를 활성화하고 기초기술의 기업이전 및 상용화를 지원토록 한다. 이밖에도 혁신지향적이고 친환경적인 복합형 산업 및 업무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도시형 첨단기술 · 정보산업지구 조성 등 다양한 입지기반을 제공하도록 한다. 특히 전주지역이 멀티미디어 및 영상산업의 중심지가 되기 위하여는 인터넷기업의 서버 시스템이 설치된 ‘ 인터넷 데이터센터(IDC) ’를 설치하여 단기적으로 디지털산업단지로 육성하고 주변에는 벤처타운을 조성하는 장기적인 전략의 채택이 필요하다.

■ 벤처기업 육성 및 창업기반의 확충

· 정부의 창업보육센터 및 벤처기업 집적시설 확충계획과 연계하여 현재 100여실 규모에 불과한 도내의 창업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지역내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확대하여 창업준비 단계에 있는 기업의 초기비용절감 및 벤처기업 활동을 지원한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는 지역내의 인적자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창업기업이 필요한 전문인력 확보와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인적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동 기능을 수행할 네트워크 브로커의 육성을 강구하되 향후 기능축소가 예상되는 지역상공회의소의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지방소재 창업기업이 경험하는 애로사항의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망벤처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상품의 개발과 디자인에서부터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지원대상 업종은 지역별로 특화하여 업종분산에 따른 지원효과의 제약가능성을 축소한다. 벤처기금 조성을 통해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엔젤클럽의 결성, 역외 투자자본 유치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자금확보를 지원한다.

4)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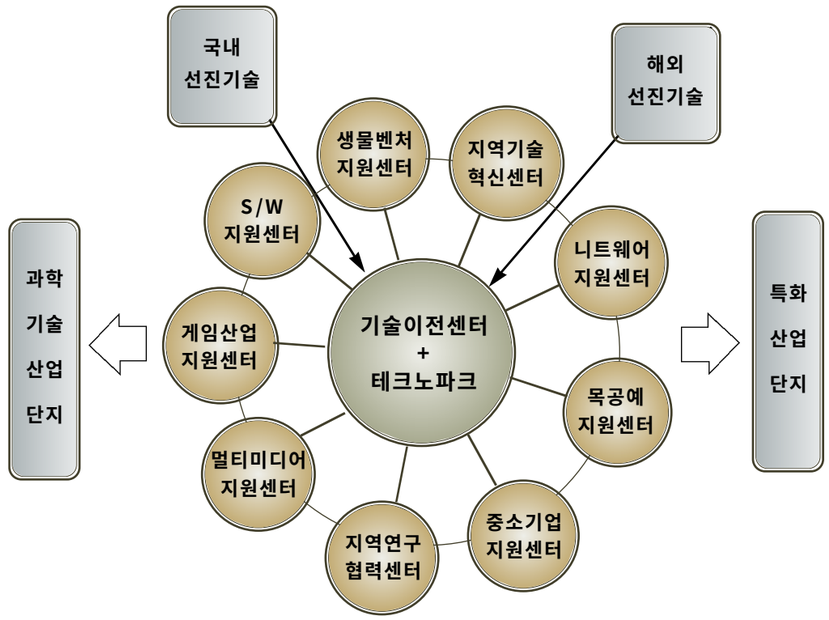
■ 지식기반산업 선도시설 및 거점시설의 신설 · 유치

·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지식기반산업 성장을 위한 경제 및 산업기반이 취약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지식기반산업 관련 거점시설, 특히 중앙정부 시설의 지역내 유치가 필요하다. 정부산하 연구기관이나 공공지원시설의 유치는 직접적으로는 지역내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간접적으로는 첨단지식기반산업 입지 지역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공공부문 선도시설의 유치는 도내 시 · 군별 산업특화 전략에 따라 추진하되, 기관의 유치가능성 · 도내의 중심성과 상징성 등을 고려하여 전주 익산 군산시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한다. 다만, 생물산업관련 시설의 경우 생물산업 연계벨트로의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전주 정읍간 벨트를 추진한다. 특히 생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 생물산업전문투자조합 ’ 및 ‘ 생물기술실용화센터 ’의 설립과 유치를 촉진토록 한다. 이 경우 기존시설의 기능확충과 시설간의 기능적 보완에 의한 시너지효과의 창출에 치중하는 공간적 집적전략을 채택한다.

■ 산 · 학 · 연 연계의 활성화와 연계 거점시설의 설치

· 산 · 학 · 연 연계거점 조성 및 연계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지역기술혁신센터 등 지역내 산학연 연계기구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의 활성화를 추진하며,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대학제도 등에 도내 주요대학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지원을 위한 산학연 및 기술정보교류와 관련된 주요 거점시설로서 테크노파크의 설립을 추진한다. 테크노파크의 조성은 전라북도와 지역내 대학 및 기업간 컨소시엄 방식으로 추진하며, 기업연구소와 대학연구소 및 생산기능간의 직접적 연계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형태로 개발한다.



<도 Ⅶ-15> 공공 산업지원시설유치 개념도

· 테크노파크 건립시에는 지역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개방연구소 및 시험시설의 확충을 검토한다. 지역내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는 테크노파크 조성과 더불어 기술이전센터나 테크노마트의 지역내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기관들이 기술이전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구는 전국 조직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의 수요에 부합되는 상세한 기술정보의 제공이나 기술거래의 중개 등에 있어 기능적인 제약이 있을 수 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기관이 기초DB 구축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전국조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전라북도의 기술정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대학이나 정부출연 연구소, 해외 주요기업이나 기관에서 생성된 기초기술의 기업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센터나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중개기능을 담당할 기술정보은행 건립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토록 한다. 기술이전센터는 시설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도내 주요 거점지역에 1개소를 건설한다. 그리고 주요 거점시설로서의 상징성 강화를 위하여 관련시설을 단일 부지내에 집중 개발하도록 하며, 적절한 부지의 확보가 가능할 경우 테크노파크와 연계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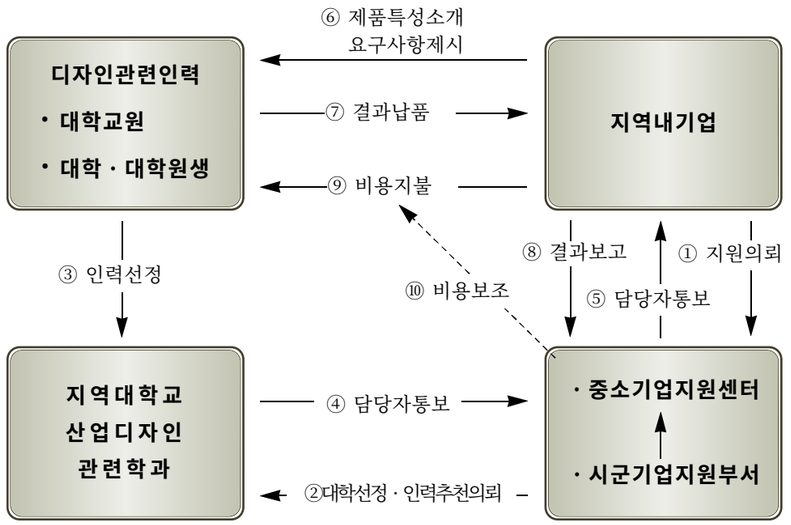
<표 Ⅶ-22> 국내 기술이전 관련 기관 현황

기관명	수요조사 DB제작	DB운영 정보제공	기술 분석	테크노 마트	알선 중개
산업기술정보원	●	◦	△	◦	△
산업기술평가원	◦	◦	△	◦	△
생산기술연구원	◦	◦			△
중소기업진흥공단	●	◦		◦	△
발명진흥회	◦	◦	△		△
과학기술원	◦	◦			
과학기술연구원		◦			
대학산업기술지원단		◦	△	◦	
연구개발정보센터	◦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			△
전자통신연구원		◦			
종합기술금융					△
기술신용보증			△		△

주 : ● 기능충분, ◦ 기능수행, △ 기능부족
자료: 통산산업부, 산업자원백서, 1999

■ 지역의 전문인력 활용체계 구축

· 본 지역의 산업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장애요인의 하나인 생산자서비스 기능 취약이라는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하여 지역내 전문인력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기업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본 지역은 풍부한 대학생 및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업에 의한 활용도는 높지 않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중개 하에 전문인력활용을 위한 인력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인력활용은 기술개발, 마케팅, 기업경영 등 전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그러나 기존의 인력풀 제도가 보여준 문제점을 보완하고, 기업과 전문인력간 상호의존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초기술분야보다 기업의 수요가 확인되는 기업상품이나 홍보물 디자인 등의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력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자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방안을 강구하며, 재원은 지역에 의해 추가 출연된 중소기업육성 기금의 일부를 활용토록 한다.



<도 Ⅶ-16> 지역내 인력활용 체계 예시도 (산업디자인의 사례)

· 인력풀 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산업 · 기술정보망의 구축을 확충한다. 산업 및 기술정보의 신속한 제공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차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이다. 특히 본 지역은 대규모 집적지역의 형성이 미약하여 기업간 대면접촉에 의한 정보획득이 곤란하기 때문에 정보망의 구축을 통하여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정보망의 구축은 개별 시군에 의한 설치를 지양하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일괄적 ·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정보망 구축에 따른 규모경제와 정보망간 호환성의 확보를 도모하고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방지한다.

■ 산업 및 기술정보망 구축

· 정보망 구축은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수요가 발생하는 모든 부문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단기적으로는 무역(시장)정보, 고가 기자재 정보, 지역 자재 판매 및 구매정보, 정부의 기업지원책에 대한 적시정보 공급을 위한 행정지원 정보망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정보망내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제고하고, 정보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수록되는 속성정보의 유형과 성격은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현지조사를 토대로 하여 선정한다. 산업정보 구축은 텍스트 정보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공간정보는 도 차원에서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국가지리정보망 구축사업의 성과를 활용한다. 이와같은 지역정보망의 구축과 함께 개별 기업의 정보활용도 증진을 위한 지원서비스 체계를 추진하도록 한다.

5) 지역생산기반의 확대

■ 선도기업의 지역내 유치 · 정착지원

· 지역내 생산기반의 확충을 위해서는 규모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선도기업의 유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지역의 산업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 전략적 유치기업 ’을 선정하여 집중적인 투자유치전략을 전개하도록 한다. 특히 영상산업,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 산업 등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내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시장과 리더역할을 담당할 선도기업의 존재가 필수적이다.[3] 선도기업의 유치는 새로운 경영기법, 신기술 도입수준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을 우선 대상으로 하여 추진하며, 전략산업 부합업종으로서 국내의 선도적 위치에 있거나 연관산업 및 중소기업에의 파급효과가 큰 국내 대기업을 유치한다. 선도기업 유치시에는 산업입지 및 지원에 있어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가 요망된다.

<표 Ⅶ-23> 영국 생명공학 산업군집의 발달조건(예시)

요 인	주요 조건내용
강력한 과학기반	· 주도적인 연구소(대학, 병원, 의료기관) · 충분한 연구인력 집단, 세계적인 과학자의 존재
기업가적 지역여건	· 대학 및 연구소내 상업적 인식과 기업가정신 · 기업가에 대한 긍정적 인식 · 차세대 기업가의 존재
성장기업의 존재	· 창업 및 분리시설 기업 · 주도적인 성숙기업 존재
핵심인력 견인능력	· 충분한 고용기회 · 산업군집으로서의 명성과 이미지 · 매력적인 생활환경
토지 및 기반시설	· 연구기관에의 근접한 인큐베이터 존재 · 연구실 및 탄력적 임대계약이 가능한 건물존재 · 확장공간 용이 및 양호한 교통연계
자금확보 가능성	· 벤처자본 및 기업엔젤의 존재
지원서비스와 대기업의 존재	· 전문화된 사업 · 법률 · 특허 등 전문서비스기업 존재 · 관련분야내 대기업의 존재
숙련노동력	· 숙련노동력의 존재 · 모든 수준의 노동력에 대한 교육 · 훈련과정 존재
효과적 네트워크형성	· 집적하고자 하는 동기 공유 · 지역산업협회, 기반설비 및 시설공유와 상호협력
정책적 지원	· 국가적 · 부문적 혁신지원정책 · 금융 및 규제환경 · 지역개발기구 및 경제개발기구로부터의 지원 · 우호적인 개발관련 기구 존재

자료: DTI, Biotechnology Clusters, Londo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1999.

3) 영국의 통상산업부(1999)가 영국내 생명공학 집적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성공가능성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은 고급인력 확보나 주도적 연구소 및 대학과의 근접성 요인과 성장기업 및 대기업의 존재를 산업군집 형성의 중요 인자로 지적하였다. 캐나다의 ACOA(1997)가 제시한 산업군집 형성의 주요요소로는 ① 지식기반산업의 잠재력에 대한 지역리더의 인식 ② 지역의 장점과 자원에 대한 인식과 지원 ③ 촉매자로서 지역내 챔피언기업의 역할 ④ 기업가 주도의 합리적 네트워크에 의한 응집력 ⑤ 다양한 투자자본의 이용가능성 ⑥ 공식 ·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한 응집력 ⑦ 교육 연구기관의 필요성 ⑧ 장기적인 생존력 확보 등으로 대기업과 지역리더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Prospects for Growing Knowledge based Industrial Clusters in Atlantic Canada, Atlantic Canada Opportunities Agency, 1997.

■ 외국인투자 기반의 구축

· 외국계 기업의 입지와 외국인의 생활을 위한 미래형 물적기반을 갖추도록 한다. 군산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및 국제교역 업무도시 건설 등을 통해 국제업무 · 생산여건을 창출하고, 외국인 전용주거시설이나 편의 시설 및 교육시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외국인의 지역내 정착을 유도한다. 수출입 업무 및 행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제3섹터 형식의 종합지원기구 또는 지역산업개발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기업제의 도입 등을 통해 투자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서해안고속도로 완공 등으로 대기업의 입지여건이 현저히 개선될 것이다. 이러한 기회에 부응하기 위하여 국내 대기업의 지역내 유치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기반을 확충한다는 차원에서 군장국가산업단지와 전주과학산업단지의 차질없는 개발을 추진토록 한다.

<표 Ⅶ-24> 산업별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개, 십만달러, %)

구 분		전산업		농축산업		광 업		제 조 업		서비스업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투자액	비중
전국	업체수	5,681	100.0	25	0.4	20	0.4	2,453	43.2	3,183	56.0
	금 액	30,577	100.0	214	0.7	67	0.2	15,653	51.2	14,643	47.9
전북	업체수	68	100.0	2	2.9	2	2.9	52	76.5	12	17.7
	금 액	1,545	100.0	6	0.4	1	0	1,321	85.5	217	14.0

주: 1) 1999년 6월 30일 기준(1962년부터의 누계), 신고기준
자료: 산업자원부, 무역투자심의관실, 투자진흥과, 내부자료, 1999.

■ 기업수요에 부합되는 입지공급체계의 구축

· 첨단지식기반산업의 지역내 입지를 지원하기 위한 입지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첨단지식기반산업은 도시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타 산업에 비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관과 개발의 질이 확보된 도시 · 산업입지 환경을 중점적으로 개발토록 한다. 이와함께 익산시 등 향후 입지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과학산업단지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입지 개발을 검토한다. 첨단지식기반산업 중 생물산업은 전주 정읍지역을 우선 개발하되, 소규모 시범사업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장기적으로는 남원시의 연계개발 방안을 강구한다. 기존 제조업 및 지연산업 분야는 다수의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형 단지를 지양하고 특화산업단지 방식으로 개발하며, 지역내 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을 추진한다. 지역내 미분양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있는 지역은 신규단지의 개발보다는 기존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이와같이 일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의 신규개발은 가급적 억제하되,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전주권 신공항, 군장신항만 건설 등으로 인하여 산업입지 수요의 증대가 예상되는 지역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신규입지 개발계획을 추진한다.

<표 Ⅶ-25> 지역내 산업단지 공급현황

구분	지구명	조성면적 (천평)	분양대상 (천평)	분양면적		미분양 면적	
				천평	%	천평	%
계(13개지구)		13,313	9,893	6,201	63.0	3,692	37
기조성	소계	7,302	5,563	4,999	90.0	564	10.0
	군산국가산업단지	2,065	1,678	1,295	77.0	383	23.0
	군산지방산업단지	1,626	1,092	1,092	100.0	-	-
	익산 제1산업단지	431	351	351	100.0	-	-
	익산 제2산업단지	1,001	798	798	100.0	-	-
	전주 제1산업단지	509	388	388	100.0	-	-
	전주 제2산업단지	208	168	168	100.0	-	-
	전주 제3산업단지	1,020	780	780	100.0	-	-
	정읍 제1산업단지	61	46	46	100.0	-	-
	정읍 제2산업단지	302	207	80	38.0	127	62.0
	김제순동산업단지	79	55	1	2.0	54	98.0
조성중	소계	6,011	4,330	1,202	28.0	3,128	72.0
	군장국가산업단지	4,770	3,394	1,003	30.0	2,391	70.0
	전주과학산업단지	931	705	52	7.0	653	93.0
	정읍 제3산업단지	310	231	147	64.0	84	36.0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환황해 교류거점으로서의 위상확립과 서해안시대의 중심산업지역으로서 본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친환경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복합생태산업단지 개발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따라 본 지역내에 개발되는 산업단지는 환경적 요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저밀도형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개발을 시범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다만 새만금지구의 활용방안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추진토록 한다.

생태산업단지의 개념과 유형

■ 생태산업단지(eco-industrial parks : EIPs)의 개념

· 에너지, 물, 물질을 포함하여 환경과 자원문제를 관리할 때 협력을 통해 발전된 환경적 · 경제적 성과를 추구하는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들의 공동체

· 기존산업의 틀내에서 기업들과 연계한 산업공생 개발
  - 산업공생의 가능성은 공단지역보다 비공단지역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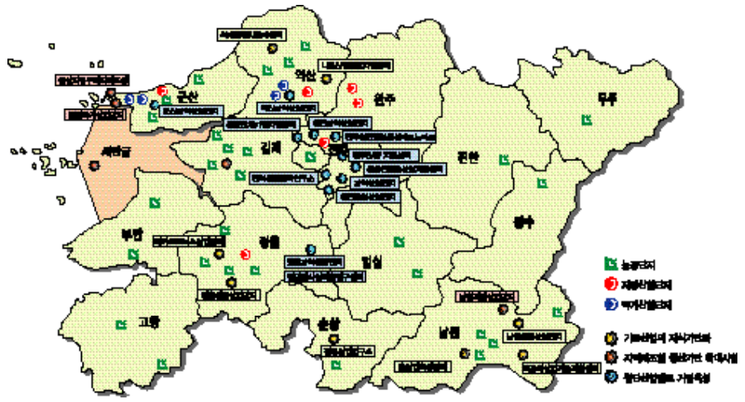
■ 생태산업단지의 유형과 개발특성

구분	신규개발 산업단지	기존 산업단지	쇠퇴 산업단지
개발 이점	· 생태공단 개발방식의 적용이 수월	· 현재 운영중인 공단으로 생산시스템의 근본적 변화없이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산업공생을 발전시킬 가능성	· 쇠락하고 있는 공단을 생태공단으로 재개발하여 지역의 환경개선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
개발 초점	· 계획단계로부터 산업생태시스템적 설계 · 물질순환을 사전에 고려한 공단개발	· 공단기업들의 공생적 협력관계의 조장 · 공생에 적합한 기업의 보충	· 종전에 누렸던 입지적 이점을 최대화하며 남아 있는 인프라를 다시 활용 · 환경산업의 육성과 보충

■ 생태산업단지의 해외 주요사례

구 분	칼룬트보르그 (Kalundborg)	페어필드 (Fairfield)	샤타누가 (Chat tanooga)
위 치	· 덴마크 코페하겐 서쪽 (80마일) 칼룬트보르그	· 미국 메릴랜드주 발티모아시 남동쪽	· 미국 테네시주 샤타누가시
특 징	· 기업간 · 인근지역과의 물질 및 에너지 교환네트워크 형성 · 다른공장의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원료, 에너지, 용수, 폐기물 등에서 효과적인 공생관계 형성 - 환경과 기업 모두에게 상당한 편익 발생	· 산업생태학을 응용한 순환경제의 보완 및 확장 - 산업공생에 적합한 제조업체의 추가입지 - 환경기술업체의 보충 - 재활용업체와 폐기물교환을 담당하는 업체의 보충 · 공단 외부와의 연계활발	· 산업화에 따른 극심한 환경문제 직면후 생태공단개발 · 갈색지대 재개발, 환경산업 육성, 제로오염배출산업 중점 육성 · 경제개발과 환경보호 두가지 측면 모두 성공적인 개발사례로 평가
산업생산 시스템	·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산업생산 시스템	· ‘ 탄소 라는 유기화합물에 입각한 순환시스템	· ENP(Environmental Network Project)라는 제조업 네트워크 형성
중심기업 업종	· 화력발전소, 제약공장, 정유소, 화학공장, 시멘트공장, 프라스틱보드공장	· 석유 · 유기화학, 아스팔트제조업, 화학업체, 운송업체, 트럭회사, 타이어재생회사, 박스제조회사	· 카페트공장, 비누제조업체, 환경기술업체

자료: 국토연구원, 경쟁력을 갖춘 개성있는 지역창출, 1999.



<도 Ⅶ-17> 산업단지 개발구상도

<표 Ⅶ-26>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추진시책 및 사업

추진시책	사업 유형	세부시책 및 개발사업	사업비 (억원)
기존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고부가가치화	지연산업의 경쟁력강화	· 지역특화산업지원시설 · 단지(석재품전시판매센터, 니트산업종합지원센터, 목공예산업기술지원연구센터, 옻산업육성단지, 전주한지기술지원센터보석전문기술훈련기관등)	832
	기존산업단지 첨단화	· 정읍생물산업단지, 메카트로닉스산업단지및남원생명산업단지조성등기존산업단지및시설의현대화추진	1,754
첨단기술. 정보 등 새로운 지식기반산업 육성	첨단산업벨트 및 첨단산업단지 (지원센터)조성	· 전북생명공학연구소, 첨단문화산업단지, 전주첨단과학산업단지, 군산 · 익산 · 정읍과학산업단지, 전주S/W지원센터, 전주첨단정보통신테크노파크,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 문화컨텐츠산업 지원센터*, 첨단방사선이용연구센터 등	5,670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보육센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정보진흥구역 포함) 조성, 벤처기금 확대조성	695 (80)
지역제조업 생산기반의 확대	외국인 투자유치및지원	· 군산자유무역지역, 전주과학산업단지내외국인투자지역조성	1,300
	지역생산기반확대	· 군장국가산업단지, 남원지방산업단지, 김제지방산업단지등	13,375
	지방중소기업의육성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출연, 지역산품 수출지원*	2,222 (842)
지역혁신체제 구축	지역혁신지원센터 구축지원	· 산-학-공 기술개발 컨소시움사업,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	796 (24)
계		-	26,644 (946)

주: 괄호안은 기투자분

1. 현황과 문제점

■ 서비스산업 기반취약

· 1998년 현재 본 지역의 서비스업체는 107,610개소, 고용규모는 364,721명에 달한다. 이는 각각 전국의 4.3%와 3.9%에 달하는 것으로 전라북도의 인구규모를 감안할 때 전국 평균에 비하여 미흡한 상태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전체 업체수의 39.3%(종업원수의 24.9%)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하여 영세성을 띠고 있어 경쟁력이 취약한 단점이 있다.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업이 22.0%(종업원수기준 14.6%)를 점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기 · 가스 · 수도업, 금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전기 · 가스 · 수도업이 가장 낮은 비중을 점하고 있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이 4.8%의 순이다. 금융업과 공공서비스업은 업체수 기준으로는 비중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수 기준으로는 각각 7.3%와 8.9%를 점하여 타 서비스업에 비해 대규모의 업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Ⅶ-27> 서비스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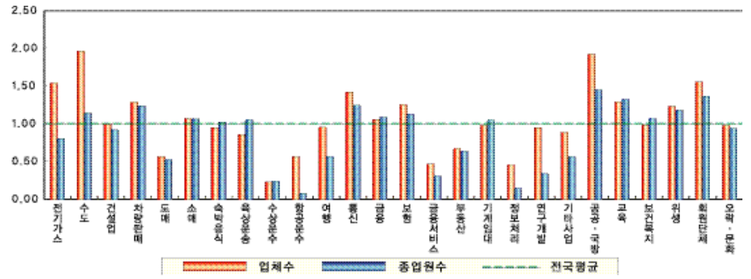
(단위 : 인,%)

구 분	전 국		전 북				전국대비 %	
	업체	종업원	업체	(%)	종업원	(%)	업체	종업원
서비스계	2,501,4	9,350,84	107,61	100.0	364,721	100.0	4.30	3.90
전기가스수도	1,318	52,713	95	0.9	1848	0.5	7.20	3.50
건설업	63,186	711,225	2,691	2.5	25,089	6.9	4.25	3.52
도소매	963,162	2,433,52	42,257	39.2	90,758	24.9	4.38	3.72
숙박음식	578,175	1,335,61	23,638	22.0	53,156	14.6	4.08	3.97
운수창고통신	218,395	811,297	8,002	7.4	30,227	8.3	3.66	3.72
금융보험	35,960	662,415	1,618	1.5	26,762	7.3	4.49	4.04
부동산및사업서비스	149,466	830,129	5,116	4.8	17,866	4.9	3.42	2.15
공공,국방,사회서비스	16,398	611,510	1,349	1.3	32,457	8.9	8.22	5.30
교육	94,935	779,622	5,042	4.7	39,228	10.7	5.31	5.03
보건사회복지	53,979	395,855	2,221	2.1	16,780	4.6	4.11	4.23
기타	326,493	726,886	15,581	14.5	30,550	8.4	4.77	4.20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보고서, 1998

■ 서비스산업 업종별 특화도

· 서비스업 특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 및 공공서비스분야가 높은 특화도를 보이는 반면, 생산자서비스업 관련분야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업체수를 기준으로 1이상의 특화도를 보이는 업종은 회원단체, 위생, 공공, 국방, 교육, 보험, 금융, 통신, 소매업, 자동차 판매업, 전기가스, 수도 등 11개 업종이다. 이에 비해 1미만의 업종은 부동산, 기계임대,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타사업서비스, 금융관련 서비스, 도매, 건설, 육상운수, 수상운수, 항공운수, 여행업, 숙박 · 음식, 오락문화, 보건 · 사회 등이다. 공공서비스 분야와 소매업 분야가 1이상의 특화도를 보이는 반면 생산자서비스와 운수서비스, 건설, 도매업 등은 1미만의 낮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본 지역의 서비스업이 전국 평균에 유사한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주로 공공서비스 및 소매 · 개인 서비스업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며, 기타 업종의 경우는 대부분 발달수준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 Ⅶ-18> 지역내 서비스업의 입지계수

■ 업무 및 생산자서비스산업의 기반 취약

· 최종소비자나 가계를 시장으로 하는 타 서비스업종과 달리 생산자서비스는 재화생산과정의 중간재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생산자서비스 기능의 존재는 지역내 산업경제의 발달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된다. 1998년 현재 본 지역에

는 6,734(부동산업 제외시 5,093)개소의 생산자서비스 업체가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총 고용은 44,628인이다. 이는 동년도 전국 생산자서비스업의 3.6%와 3.0%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산자서비스업을 업종별로 세분하여 보면 가장 취약한 분야는 정보처리와 연구개발 및 금융관련 서비스업으로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의 0.4 1.15%에 불과하며, 기타 사업서비스업 역시 전국의 2.1%에 지나지 않는다.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 정보처리, 연구개발, 기타 사업서비스 등 고차생산자 서비스업은 서비스업 가운데 가장 낮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표 Ⅶ-28> 생산자서비스업 현황

(단위: 개소,인)

구 분	전라북도		전국비중(%)		업체규모 (전국=100)	입지계수	
	업체수	종업원	업체수	종업원		업체	종업원
소 계	6,734	44,628	3.63	2.99	82.33	0.84	0.76
금융	882	11,654	4.58	4.24	92.78	1.06	1.08
보험	664	14,519	5.21	4.30	82.55	1.21	1.10
금융서비스	72	589	1.80	1.15	63.60	0.42	0.29
부동산	1,440	5,766	2.77	2.38	85.77	0.64	0.61
기계임대	1,641	2,649	4.15	4.08	98.22	0.96	1.04
정보처리	76	253	1.71	0.43	25.62	0.39	0.11
연구개발	43	486	3.92	1.06	27.12	0.91	0.27
기타사업서비스	1,916	8,712	3.64	2.07	56.91	0.84	0.53

주: 입지계수는 전국의 전산업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사업체 기초통계 조사보고서, 1998

· 생산자서비스업 가운데 금융업과 보험업은 전국대비 4 5%의 비중을 점하여 전국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은행의 분포를 살펴보면 전국대비 비중을 근거로 전북지역의 금융업이 발달하였다고 단언하기 곤란하다. 본 지역에는 205개소의 은행이 입지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전주, 군산, 익산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본 지역내 시·군 가운데 시중은행이나 은행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6개 군에 달하며, 장수군과 임실군은 지방은행없이 전적으로 농협에 금융기능을 의존하고 있다. 특히 일반가계보다는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타 은행의 경우 지역내에 단지 9개소만이 설치되어 있으며, 9개 시·군지역에는 이들 기타은행이 존재하지 않는다. 지역내에 산업관련 자금을 담당하는 금융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업입지에 있어서는 중대한 제약요인이 된다. 더욱이 시중은행조차 존재하지 않는 지역이 6개군에 달하고, 은행이 전혀 없는 군이 2개소에 달한다는 점은 이들 지역에의 경제활동 입지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Ⅶ-29> 시·군별 금융기관 분포 현황

(단위 : 개소)

	계	한국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농·수·축협	기타은행
전북 계	205	2	76	63	55	9
전주시	85	1	31	33	17	3
군산시	34	1	13	9	8	3
익산시	38	-	19	10	8	1
정읍시	10	-	3	2	4	1
남원시	7	-	3	1	2	1
김제시	7	-	3	1	3	-
완주군	4	-	2	2	-	-
진안군	2	-	-	1	1	-
무주군	3	-	-	1	2	-
장수군	1	-	-	-	1	-
임실군	2	-	-	-	2	-
순창군	3	-	-	1	2	-
고창군	3	-	-	1	2	-
부안군	6	-	2	1	3	-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1999.

2. 여건변화와 전망

■ 서비스업의 양적 증대와 질적 변화

· 1997년 현재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의 65.3%를 점하고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는 2020년의 경우 서비스업의 비중이 72.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더욱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또한 향후에 나타날 서비스산업의 모습은 기존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띨 것이며, 서비스산업의 환경도 급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서비스업의 탈공간화와 재집중화 경향

· 서비스업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화로는 정보화의 진전과 대형화 · 전문화이다. 정보화의 진전과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는 서비스 거래의 공간제약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정보화는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서비스 유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지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잔존하여 온 기존 서비스업체들의 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탈공간적 경향과 반대로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점차 공간적으로 집중하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전문화된 서비스산업의 경우 제조업과의 연계, 서비스산업내 타 부문과의 연계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에따라 서비스 산업의 공간극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기존의 제조업 집적지역과 같이 전문서비스업의 지역집적 및 특화경향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다.

■ 서비스업의 대형화와 전문화

· 서비스업의 구조에 나타나는 또 다른 중요한 변화로는 대형화와 전문화를 들 수 있다. 서비스부문의 시장이 개방되고 대기업의 서비스분야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부문은 점차 대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개인소매업체가 대형 매장에 의해 존립을 위협받는 것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대형화와 전문화의 진전은 교통수단의 발달과 결합되어 국지적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서비스기업의 시장을 잠식할 것이며, 이에따라 소규모 지방소재 서비스기업의 존립기반은 더욱 취약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3. 계획의 기본방향

■ 전문 및 고차생산자서비스업의 육성

· 지역서비스산업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부문으로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서비스산업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한다. 생산자서비스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핵심적 요인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육성책 수립을 추진한다. 생산자서비스의 육성은 지역경제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추진하며, 서비스업의 입지가 시장수요가 확인된 도시지역을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내 대도시를 거점으로 하여 기타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단계적 접근전략을 추진한다.

■ 서비스업의 정보화기반 확충

·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서비스업체의 정보화기반을 대폭적으로 확충한다. 현재 제조업과 1차산업 중심으로 구성된 도내 산업정보망을 확충하여 개인서비스업의 정보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소비자서비스업의 현대화 및 전문화

· 지역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서비스업의 현대화 및 전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기존의 도소매업 및 유통업의 현대화를 통하여 지역상권의 보호를 촉진하며, 관광산업이나 제조업 등 지역산업과 연계된 서비스업의 전문화를 통하여 소비자 서비스업의 기반산업화를 도모한다.

4. 세부추진시책

■ 전문 생산자서비스산업의 특화 육성

· 지역산업의 지식기반화를 지원하고 지역내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서비스업의 지역내 육성기반을 구축한다. 특히 지식기반서비스업중 지역내 성장이 유망한 것으로 평가되는 정보통신서비스와 소프트웨어, 영상 · 음반산업, 관광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이를 위하여 공공지원서비스기관의 신설, 지역내 전문서비스 인력양성체계 구축, 전문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체계 정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신도시개발, 도시재개발사업의 추진시 현대적 사무공간의 확보가 가능한 특정업무지구 등의 조성을 통한 전문서비스업의 입지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고, 문화산업육성지구, 정보통신산업진흥지구 등 전문적 생산자서비스업의 집적을 유도하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지역금융산업의 육성

·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건립을 추진한다. 비통화금융기관의 상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내 금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한다. 전국 평균에 비해 극히 부족한 은행지점의 지역내 설립확대를 추진한다. 정보망을 통한 무인 지점의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시중은행이 존재하지 않는 지역에 대한 대민 서비스 향상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농업중심의 지역경제 특성과 높은 노령인구비율이라는 지역인구 특성을 고려한 개성있는 금융상품 개발 및 서비스 향상을 통하여 도내 전 지역이 다양한 금융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역금융산업의 육성과 지역내 기업의 금융서비스 개선을 위하여는 기업의 신용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하는 방안에 대한 산 · 학 · 관 협력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 지역유통 및 도소매업의 현대화와 자립기반 구축

· 유통업의 대형화와 전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역 진출에 대비하고, 지역내 중소기업 상품시장의 확보를 위하여 지역내 기존 유통업체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현재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으로 지정된 김제 요촌시장 등 2개 시장의 재개발사업을 기간내 완료하고, 그외 지역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보호와 소규모 개인서비스업체의 존립기반을 확보한다. 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창고 건설지원, 시설개 · 보수사업 지원 등 유통업 구조개선과 합리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구하며 전문상가단지 조성 및 공동물류정보망 구축을 통해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한다. 특히 기존 시가지내 재래시장 및 상가는 도시재개발 및 재활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경쟁력과 매력도를 높여 나가도록 한다. 이와함께 각 지역별로는 상징성이 있는 쇼핑거리 및 문화거리를 연계 조성하여 쇼핑과 문화활동을 종합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상권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관광산업과 연계한 상품개발과 마케팅을 추진하도록 한다.

■ 서비스업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체계의 확립

· 지역내 소규모 개인 도소매, 음식, 숙박 및 기타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한 정보화교육 실시, 정보화 시설확충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의 정보화를 촉진한다. 정보화 지원은 음식 · 숙박업 등 관광산업 연관 서비스업이나 정보처리서비스업 등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우선대상으로 하며,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서비스산업 정보망을 구축하고, 업체별 홈페이지 구축, 정보예약제 실시, 정보마케팅체제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 서비스 산업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 확대

·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서비스업에 대한 행 · 재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본 지역의 유망 지식기반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지식기반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기능강화, 서비스업 분야 창업정보 및 경영정보 제공과 현장지도 등을 강화하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시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우대, 중소기업 지원센터 및 기타 기업지원 공공기관의 서비스업 지원기능 확대 등을 추진한다.